

## 반려동물 경험 유무,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이은희\* · 리우페이페이\*\* · 공영숙\*\*\* · 임지영\*\*\*\*

### 요 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와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경험에 관한 자료, 그리고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관한 자료를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와 상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및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사회성의 책임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사회성 전체 점수와 사회성 하위 요인 중 책임성, 협동성, 그리고 정서지능 전체 점수와 정서지능 하위 요인 중 감정이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나 기간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함양에 대한 시사점을 지닌다.

주제어 : 반려동물, 애호도, 사회성, 정서지능

논문투고일 : 2011. 10. 31

최종심사일 : 2011. 12. 3

게재확정일: 2011. 12. 7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과정, 주저자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과정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ong, Young-sook,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yskong@knu.ac.kr

## I. 서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唯一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행동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게 되고, 사회집단이나 사회의 규범·도덕·가치·신념 등을 배우고, 사회의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이다. 인간이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기제들이 작용하는데 그 중 중요한 요소로 사회성과 정서지능을 들 수 있다(이명희, 2001; Mavroveli, Petrides, Rieffe, & Bakker, 2007).

사회성은 사회활동이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대인 적응성이 강한 인성 특징을 말한다(정범모, 1971). 다양한 가치가 상존 하며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능력, 즉 사회성은 점점 강조되어 가고 있다(이명희, 2001).

한편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ayer & Salovey, 1997). Goleman(1995)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 20%만이 지적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나머지 80%는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서지능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고려한 원만한 상호작용을 돕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도 건설적인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Mavroveli, Petrides, Rieffe, & Bakker, 2007).

이와 같은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그 중 대학생 시기는 사회성과 정서지능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시기는 이전의 생활과 비교하여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시기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하여 자유스럽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시기이다(윤정애, 2008). 또한 이전의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 속에서 형성된 학생 개인의 부담감과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타율성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미성숙한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변화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최지현, 2009). 무엇보다도,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 밀착되어 있던 시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이며,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이은우, 2006).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환경, 확장된 대인관계, 타율성과 자율성의 사이의 과도기에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성 형성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정서지능 역시 함양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예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이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학생 시기에 적절한 사회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만족한 동료관계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사회성의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실패하면 불안, 고독, 불행을 느끼고(Angyler, 1974; 최구봉, 2003 재인용),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행, 정신장애, 군대에서의 불명예 재대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차영희, 1995).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잘 활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며, 불안, 분노, 좌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우, 2006). 반면, 사회·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즐거움이나 만족, 희망,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 대신 불안이나 후회, 불만족,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동료나 학교, 가족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유능한 인적 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은우, 2006).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성이나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족, 학교,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요인들 외에도 반려동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반려동물이란 용어는 애완동물을 유희의 대상에서 반려(伴侶)와 같이 ‘함께 여생을 보낸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가족, 친구, 애인 등과 동일시하는 입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효원 · 박영석, 20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교생 6,979명과 학부모 4,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이 57.7%로 먼 친척 49.9%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을 일방적으로 보거나 만지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즉, 오늘날 가정에서 길러지는 많은 동물은 인간에게 단순히 장난감처럼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이서윤, 2009).

특히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만족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동물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반려동물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Nicholas, Collis & Morley, 199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기르기 활동 수업은 유아들의 감정이입 능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이화수, 2001),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조망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진, 2004). 또한 반려동물 기르기 경험은 초등학생의 사회성 영역 중 준법성의 발달에 정적 영향을 주며, 정서 발달 영역 중 내적통제, 성취동기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완오, 2007). 이와 더불어 손원현(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도가 높을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아동의 정서지능과 반려동물 애호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반려동물을 인간의 사회성이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에 이용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동물매개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으며(Banks & Banks, 2002), 아동들의 사회성 함양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Caprilli & Messeri, 2006). 또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타인에 대한 친절함과 감정이입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됨과 더불어 사회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erson, 1997).

반면, 초등학생의 반려동물 기르기 경험과 친사회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신혜경(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려동물 기르기 경험 유무나 키운 기간에 따른 친사회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경험 유무, 키운 기간, 애호도가 사회성이나 정서지능과 각기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어 반려동물 키우기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더불어 키운 기간,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를 고려하면서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성인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반려동물의 영향에 대한 많은 측면을 제시하였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반려동물의 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속에

서 세대간의 대화단절, 문질만능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이은우, 2006), 심리적 적응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많다(최송미, 2003). 따라서,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가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경험 유무, 키운 기간,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대학생의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사회성과 정서지능 증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와 애호도, 그리고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의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은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5)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3	37.8	
	여	202	62.2	
연령	만18~19세	24	7.4	
	만20~22세	190	58.5	
	만23~25세	96	29.5	
	만26~30세	15	4.6	
반려동물 경험	유	강아지	102	31.4
		고양이	16	4.9
		조류	6	1.8
		햄스터	16	4.9
		물고기	9	2.8
		기타	6	1.8
		합계	155	47.7
	무		170	52.3
반려동물 키운 기간	6개월 이하	41	29	
	7~12개월	37	26	
	13~48개월	21	15	
	49개월 이상	42	30	
반려동물 애호도 (경험 유 집단)	아주 좋아 한다	62	40	
	좋아하는 편이다	78	50.3	
	싫어하는 편이다	14	9	
	아주 싫어 한다	1	0.6	
계		325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학생이 123명(37.8%), 여학생이 202명(62.2%)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0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연령의 평균은 21.9세 (SD=1.98)였다. 만 20세 미만이 24명(7.4%), 만 20~22세까지는 190명(58.5%), 만 23~25세까지는 96명(29.5%)이었고, 만 26세 이상은 15명(4.6%)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5명(47.7%)이었고, 이들이 키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강아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102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1년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5년 이상 기른 응답자도 42명(30%)에 달하였다. 반려동물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아주 좋아 한다' 62명(40%), '좋아하는 편이다' 78명

(50.3%), ‘싫어하는 편이다’ 14명(9%), ‘아주 싫어한다’ 1명(0.6%)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다. 먼저, 대학생의 반려동물 경험 유무와 애호도,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소재 3개 대학의 대학생 3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2일 이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모두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100%),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325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과 키운 동물의 종류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 등의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관한 정보를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 사회성과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

대학생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어떠한가요?”이며 응답은 “아주 좋아한다”에서 “아주 싫어한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 2) 사회성

사회성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김영준(2002)의 사회성 측정 도구이다.

김영준(2002)은 중앙교육개발원(1987)에서 개발한 사회성 측정 문항을 기초로 하여, 박경수(1994)와 안상희(2000)의 사회성 측정 도구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것이다. 김영준(2002)의 사회성 측정도구는 전공 교수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가 확립되었으며,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의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원척도는 총 30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자제성의 1문항을 제외하고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성 척도는 자기보고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측정도구 문항의 일부를 소개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책임성)',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협동성)', '남을 도우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무릅쓴다(봉사성)', '여러 사람들과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사교성)',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계획성)', '상대방이 나와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낸다(자제성)' 등이다. 김영준(2002)에서 보고한 사회성 척도의 신뢰도는 책임성 .72, 협동성 .79, 봉사성 .75, 사교성 .66, 계획성 .68, 자제성 .60, 사회성 전체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책임성 .67, 협동성 .57, 봉사성 .63, 사교성 .66, 계획성 .53, 자제성 .52이었으며, 사회성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 3)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 측정을 위하여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척도 (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AEQ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 보고식이며, 원척도는 정서지능 영역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감정이입의 1문항과 정서활용의 1문항을 제외하고 43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측정도구에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정서인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정서표현)', '나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불쾌한 일을 당하면 내 기분도 언짢아 진다(감정이입)', '기분이 나쁜 일은 빨리 잊어려고 애쓰는 편이다(정서조절)', '평소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사람과 일을 같이 해 볼

기회가 생겼다. 이럴 때 나는 ① 이 기회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거나 최소한 장점이  
라도 찾아보려 한다 ② 되도록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한다(정  
서활용)’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대학생 정서지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용린(1996)에서 밝힌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인식  
.75, 정서표현 .77, 감정이입 .80, 정서조절 .76, 정서활용 .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  
식 .60, 정서표현 .62, 감정이입 .56, 정서조절 .78, 정서활용 .47이었으며, 정서지능 전체 척도  
의 신뢰도는 .78이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test를 실  
시하였다.

넷째,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사회성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 그리고 반려동물의 애호도와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차이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성 전체와 사회성 하위요인, 정서지능 전체와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차이 (N=325)

	종속변수	경험 유무	N	M	SD	t
사회성	책임성	유	155	3.86	.52	1.43
		무	170	3.78	.46	
	협동성	유	155	3.50	.53	1.16
		무	170	3.44	.51	
	봉사성	유	155	3.26	.54	1.26
		무	170	3.19	.49	
	사교성	유	155	3.03	.47	-.07
		무	170	3.03	.44	
	계획성	유	155	2.96	.55	-.35
		무	170	2.98	.49	
자제성	유	155	3.31	.52	-1.61	
	무	170	3.40	.48		
사회성 전체	유	155	3.37	.31	.69	
	무	170	3.35	.31		
정서지능	정서인식	유	155	3.32	.42	-.73
		무	170	3.35	.42	
	정서표현	유	155	3.23	.51	.83
		무	170	3.19	.50	
	감정이입	유	155	3.64	.45	1.30
		무	170	3.58	.41	
	정서조절	유	155	3.60	.41	1.02
		무	170	3.54	.39	
정서활용	유	155	4.58	.20	-1.34	
	무	170	4.61	.21		
정서지 전체	유	155	3.67	.25	.82	
	무	170	3.65	.27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 경험 유무에 따라 책임성, 협동성, 봉사성, 사교성, 계획성, 자제성 및 사회성 전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및 정서지능 전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에 따라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설문에서 155명이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키운 기간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141명이었으므로, 본 분석은 141명의 응답으로 실시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N=141)**

	책임성	협동성	봉사성	계획성	사교성	자제성	사회성 전체
반려동물 키운기간	.18*	-.04	-.08	.10	.08	.03	.09

\* $p < .0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사회성 하위요인 중 책임성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8, p<.05$ ). 이는 반려동물을 오래 키운 대학생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대학생의 협동성, 봉사성, 계획성, 사교성, 자제성 및 사회성 전체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대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N=141)**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 전체
반려동물 키운기간	-.03	.03	.12	.10	.01	.09

<표 4>에서 보듯이,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정서지능 하위요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과 정서지능 전체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반려동물의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반려동물의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 중 반려동물 경험이 있는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반려동물 애호도와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N=155)**

	책임성	협동성	봉사성	계획성	사교성	자제성	사회성 전체
반려동물 애호도	.18*	.22**	.10	-.07	-.04	.08	.18*

\* $p < .05$ , \*\* $p < .01$

<표 5>에서 보듯이, 먼저 반려동물 애호도는 사회성 전체( $r = .18, p < .05$ )와 사회성 하위요인 중 책임성( $r = .18, p < .05$ ), 협동성( $r = .2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 애호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사회성과 책임성, 협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 애호도는 사회성 하위 요인 중 봉사성, 계획성, 사교성, 자제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반려동물 애호도와 대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반려동물 애호도와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N=155)**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지능 전체
반려동물 애호도	.10	.14	.32**	.11	.12	.24**

\* $p < .05$ , \*\* $p < .01$

<표 6>에서와 보듯이, 반려동물 애호도는 정서지능 전체( $r = .24, p < .01$ ) 및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r = .32,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 애호도가 높을수록 전체 정서지능과 감정이입 능력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반려동물 애호도는 정서지능 하위요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과는 유의미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 키운 기간,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생 325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키운 경험이 없는 대학생 간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먼저,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사회성 전체와 하위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애완동물 사육경험 유무에 따른 친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신혜경(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의 발달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만으로는 집단 간 사회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 추정된다. 오히려, 반려동물과 인간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였는가가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반려동물의 경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 전체와 정서지능 하위 영역 모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amb(1978)은 인간의 발달을 태어나면서 부터의 유기체와 사회적인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정서지능 발달 역시 다른 영역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에 따른 정서지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이나 애착 없이 단순히 키운 경험 만으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에 차이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책임성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이 길수록 대학생의 책임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순응하는 동물의 감정과 욕구를 직접 경험하고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정철규(2002)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살펴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능력인 책임성이 더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책임성을 제외한 사회성 하위 요인과 정서지능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성과 정서지능이 높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을 기른 기간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관계에 차이가 없었다는 김연순(2003)의 연구 결과와 일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김연순(2003)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로 추정해 볼 때, 단지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간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변수가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체가 누구 인지, 그리고 그 동물과의 애착의 정도가 어떠한지 등이 대학생의 사회성이나 정서지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관해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만으로 결과를 단정 짓기는 무리가 따르며,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관한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사회성 하위 요인 중 책임성, 협동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정서지능 하위 요인 중 감정이입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반려동물 애호도가 사회성의 책임성, 협동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려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와 책임감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존하고 순응하는 동물을 통해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이서운, 2009; 정철규, 2002)과 같은 맥락이다. 이서운(2009)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생명유지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의존하는데, 이러한 의존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 ‘자녀’ 혹은 ‘동생’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끔 한다고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감 또한 증진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와 협동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또래관계에서 결속력이 높고, 상대를 인정하며 잘 보살피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주는 행동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김연순(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한다(Struckus, 1991). 또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사회접촉이 증가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다고 한다(Granger & Kogan, 2000; Rost & Hartmann, 1990).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여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많을 것이며, 의사소통 등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협동성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는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은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타인의 기분을 이해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Goleman,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이 느끼는 아픔과 기쁨이 곧 자신의 아픔과 기쁨일 수 있다고 지각하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들(이화수, 2001; 정철규, 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애완동물은 무조건적으로 수용적이기 때문에(Struckus, 1991), 사람들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개방이 용이하므로, 애완동물에 대해 감정이입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Endenburg & Baarda, 1995). 또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요구를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Paul, 1992). 특히 이러한 감정이입 능력은 반려동물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없거나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Melson & Schwarz, 1994; 김호정, 2006 재인용). 반려동물과의 애착 형성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애호도의 바탕위에서 형성된다고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반려동물에 대해 강한 애착을 형성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감정이입 능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반려동물을 기른 기간 역시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Robin과 Bensel(1985)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만으로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Poresky와 Hendrix(1990)는 애완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애호도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나 기간이 아닌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지의 여부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해 애호도가 높고, 애착의 정도가 높을 때 사회·정서적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이 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는 것과 반려동물과의 애착 형성을 통해 책임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잘 보살피고 이해하며 조력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 사회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치료적 접근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교육시키는 교육적 매개체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반려동물 애호도에 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 키운 기간, 애호도 등을 살펴보았지만, 반려동물이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형제유무, 가족과의 동거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경험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사회성이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반려동물과 대학생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회성과 정서지능의 연구에서 다소 배제되어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애호도가 대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 시기(이서윤, 2009)에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들은 학교이나 가정에서 사회성이나 정서지능의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동료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반려동물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중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연순(2003). 애완동물 기르기와 아동의 외로움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준(2002). 여고생의 스포츠 참가 여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2005). 아동의 애완동물 사육경험과 관련된 아동 및 가족의 특성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서울: 세종문화회관.
- 손원현(2007). 다양한 애완동물 기르기가 아동들의 생명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경(2003). 아동의 애완동물 사육 경험과 친사회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애(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1). 무용 참가자 사회화 결정 요인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윤(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사회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임순(2010).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천일(2004).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애완동물에 관한 고찰 : 애완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수(2001). 애완동물 기르기가 유아의 감정이입 및 동물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원·박영석(2004). 애완동물. 서울: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철규(2002). 애완견사육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진(2004). 교실에서 동물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영희(1995).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사회성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규봉(2003).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구안과 적용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19(1), 111-142.
- 최송미(2003).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완오(2007).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학습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ks, M. R. & Banks, W. A. (2002).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loneliness in an elderly popul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57(7), 428-432.
- Bryant, K. Brenda. (1990). The richness of the child-pet relationship: a consideration of both benefits and costs of pets to children. *Anthrozoös*, 3(4). Spring.
- Caprilli, S. & Messeri, A. (2006). Animal-assisted activity at A. Meyer children's hospital: A pilot study. *Evidence-Based Complement Alternative Medicine*, 3(3), 379-383.
- Endenburg, N. & Baarda, B. (1995). The role of pets in enhancing human well-being : Effects on child development. Retrieved June 8, 2003, from <http://www.deltasociety.org/dsx211.htm>.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New York: Bantam Books.
- Granger, P. B. & Kogan, L. (2000). Animal-assisted therapy in specialized setting. In F. H. Aubret(Eds.).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San Diego: Academic Press.
- Henderson, K. (1997). Beetles, bechnuts, and behavior: Using nature-based activities to develop social skil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Lamb, M. E. (1978). Influence of the child on mental quality and family interaction during the prenatal and infancy periods In R. M. Lerner and G. B.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Mavroveli, S., Petrides, K. V., Rieffe, C., & Bakker, F. (2007).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er-rate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63-275.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pp. 396 - 420). New York: Basic Books.
- McNicholas, J., Collis, G. M., & Morley, I. E. (1995). Psychological support as a mechanism underlying health benefits associated with pet ownership. In S. M. Rutter, J. Rushden, H. D. Randle, J. C. Eddison(Eds.). *Proceedings of the 2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Ethology*(pp. 119 - 121). UFAW, Potters Bar.
- Paul, E. (1992). *Pets in childhood, individual variation in childhood pet ownership*.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 Poresky, R., & Hendrix, C. (1990). Differential effects of pet presence and pet bonding in young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 1, 463-469.
- Robin, M., & Bense, R. (1985). Pets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Marriage and Family Review*, 8, 63-78.

- Rost, D. H., & Hartmann, A. (1994). Children and their pets. *Anthrozoos*, 7(4), 242- 254.
- Siegel, J. M. (1993). Companion animals: In sickness and in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Spring 93, 49, 157-167.
- Struckus. J. E. (1991). Pet-facilitated Therapy and The Elderly Client. Handbook of Clinical Behavior Therapy with The Elderly Client. *Applied Clinical Psychology*. 18, 403-419. edited by P. A. Wisocki. New York: Plenum Press.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ience of raising and fondness for companion animal, college student's soci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Lee, Eun-Hee\* · Liu Feifei\* · Kong, Young-Sook\*\* · Lim, Ji-You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ience of raising and fondness for companion animal, college student's soci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5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in Daegu. The measurements of this study were Sociality Scale and 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9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soci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ho experienced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students who didn't. Second, the period of raising animals was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Third, the fondness for animals was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empath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help enhance soci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mpanion animal, fondness, sociality, emotional intelligence

---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